

최근 미국 및 중국(G2)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

(2014.3.2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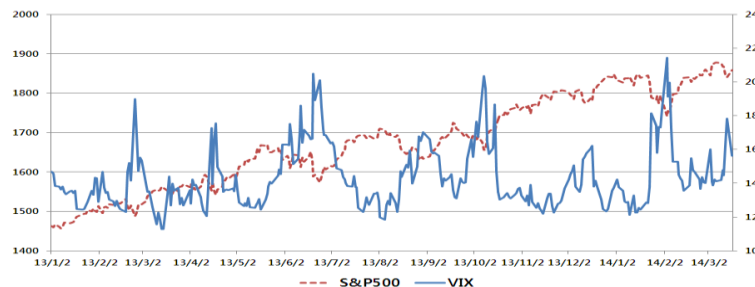
BS경제연구소

금융시장 동향

□ 금년들어 미국 및 중국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

- 미국 주가는 2월 초 미국 제조업 및 중국 서비스업 지표 부진 등으로 한차례 급락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지만 변동성은 커진 상황

<미국 주가와 변동성>



자료: Bloomberg, 국제금융센터

- 중국 주식시장은 지난해 6월 말 신용경색 및 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급락 후 하반기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시 하락 추세(금년들어 5.8% 하락)
- 최근 경기전망 우려와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위안/달러 환율 급등(금년들어 3.0% 상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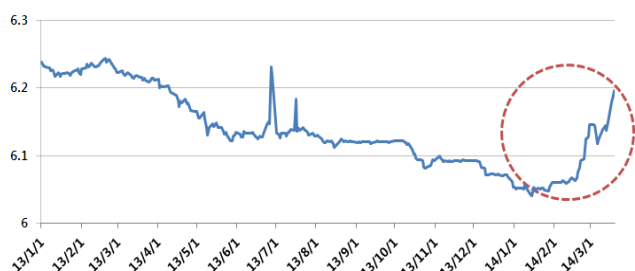
* 중국 인민은행은 3월 17일부터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기존 $\pm 1\%$ 에서 $\pm 2\%$ 로 확대

<상해종합주가지수 추이>



자료: 국제금융센터

<위안/달러 환율 추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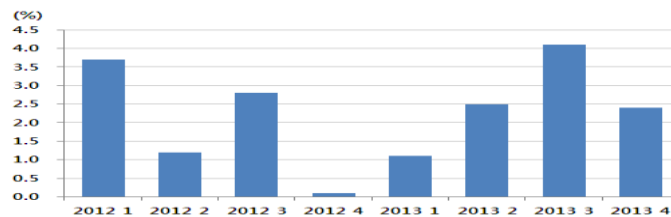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제금융센터

미국 경제 동향

□ 미국 경제는 지난해 4/4분기 이후 회복세 둔화

- 4/4분기 GDP증가세 둔화는 개인소비 부진 및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이 주요 원인

<미국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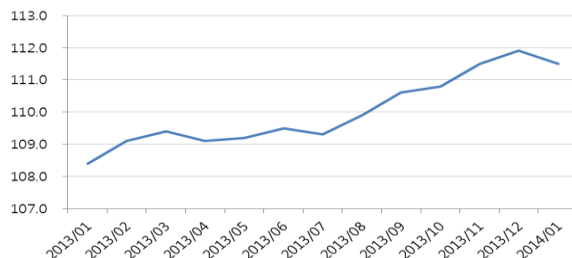


주: 전기비 연율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- 산업생산 및 ISM제조업지수는 상승흐름을 지속하다 금년 1월 이상 한파 등의 영향으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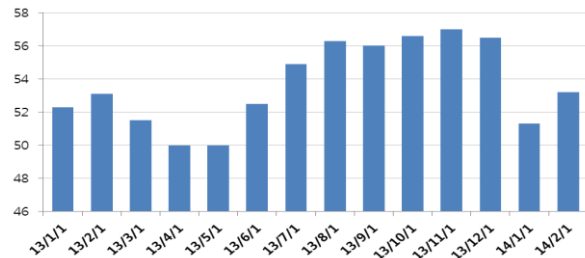
<미국 산업생산지수>



주: 계절변동조정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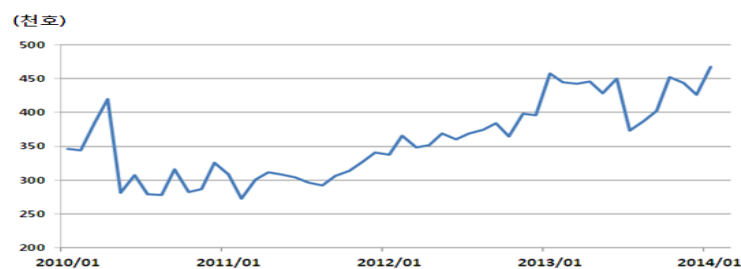
<미국 ISM제조업지수>



자료: 국제금융센터

- 한편 신규주택판매는 테이퍼링(Tapering)이 처음으로 언급된 2013. 5월 이후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음

<미국 신규주택판매건수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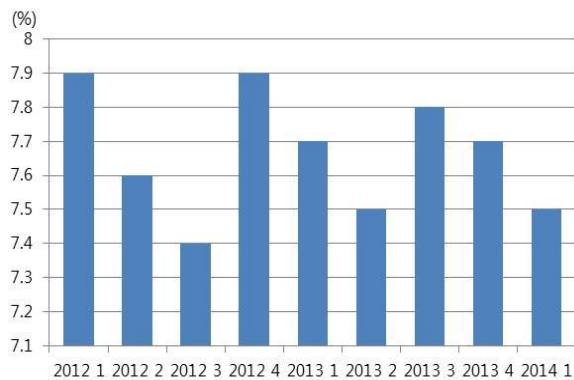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중국 경제 동향

□ 중국 경제는 지난해 4/4분기 이후 성장세 둔화

- GDP성장률은 2013년 4/4분기에 이어 금년 1/4분기에도 하락 예상
- 1~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비 8.6% 증가에 그쳐 작년 12월 (9.7%)를 밑돌고 2009년 8월 이후 최저치 기록

<중국 분기별 실질GDP성장률>



주: 전년동기대비, 2014년 1/4분기는 예상치
자료: 국제금융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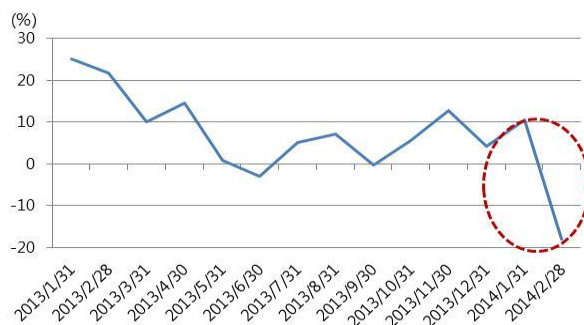
<중국 산업생산 증가율>



주: 전년동기대비
자료: 국제금융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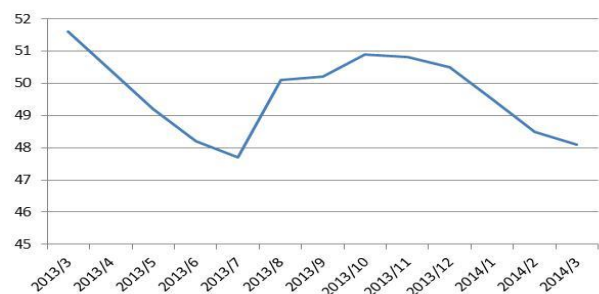
- 1~2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.7% 감소
- PMI는 작년 10월(50.9)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, 3월에는 48.1로 2013년 7월 (47.7) 이래 최저치를 기록

<중국 수출 증가율>



주: 전년동기대비
자료: 국제금융센터

<중국 제조업PMI>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전망

□ 금년 들어 G2의 금융시장에서 위험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으며, 이의 반등 여부가 글로벌 경제의 관심사로 부각

– 미국 경제의 경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

–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의 후유증*, 내수 중심의 성장체제로의 전환 등으로 성장세 둔화** 우려

* 2008년부터 4조위안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급격한 경기 위축은 억제하였으나 과잉설비, 지방정부 및 기업의 과다부채 부작용 초래

** 최근 주요 IB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

• JP Morgan : 7.4% → 7.2%

• UBS : 7.8% → 7.5%

• BOA Merrill Lynch : 7.6% → 7.2%

□ 미국 경제는 금년 1/4분기 중에도 혹한의 영향으로 인한 생산 활동 및 소매판매 부진으로 성장세가 낮아질 것이지만 2/4분기 이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

– 지난 3월 19일 연준 FOMC회의에서 채권매입 규모를 추가로 100억달러 줄이기로 한 결정은 경기흐름이 당초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

□ 이에 비해 중국 경제는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적 성장정책으로의 전환 등에 비추어 단기간 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, 중국정부의 경제관리능력에 비추어 전문가들은 급격한 경기둔화를 예상하지는 않고 있음

-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최근 위안화 약세 유도도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음

✓ 이와 같이 G2경제가 안정기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G2 경제지표 변동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

-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미국의 금리 상승, 중국경제 성장 둔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, 자산에 대한 매력이 크게 감퇴된 신흥시장국에서 계속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✓ 한편 최근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수출 부진 및 인프라 투자 위축 등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으므로, 동남권 지역에서는 선박부품, 선박용엔진, 철강, 건설 및 공작기계 수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

* 동남권 총 수출 중 대중국 수출 비중은 약 15%임

(작성자: 송정현 대리, 염지연 대리)